광양만권 공동발전 힘 모은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 정기회의
예산안 의결 등 3건 심의·의결
여수공항 활성화 업무 협약도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지난 14일 여수, 순천, 광양시장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그동안 심의 의결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2022년 여순광 행정협의회 재무 결산, 2023년 여순광 행정협의회 예산안 의결,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신규 안건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신규 안건에 대해서는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권 지방이양 건의는 원안 가결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 지정은 실무부서 간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광양만권 수소 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건설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배치 등 15개 연계·공동협력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광양만권 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 협력해 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 약정식(여수 1억 1,000만 원, 광양 1억 원)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병행 추진됐다.

협의회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은 "3개 시는 광양만권을 대표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동안 여러 역할을 해왔다"며 "3개 시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과 과제를 서로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지난 14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광양시 제공

장흥, 1회 추경 5,966억 가결

본 예산 대비 845억 증액
주민 삶의 질 향상 주안점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5,966억 원으로 확대된 '2023년 1회 추경예산' 이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장흥군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본예산 5,120억 원의 16.52%(845억 원)가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된 예산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저출산 고령화 인구 대응 사업이 반영됐다.

연초 읍면 순방을 통한 주민건의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도 우선 편성됐다.

군은 이번 추경예산을 두고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예산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힐링 문흥 가족친화환경 조성 27억 원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조성 20억 원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 22억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8억 원 ▲우드랜드 야간경관조성사업 6억 원 ▲지능형 CCTV 설치 4억 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 원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17억 원 등이다.

특히,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통해 침체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보에 약 150억 원을 할여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안전문제 및 생활불편 관련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추경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고흥, 올해 교육발전기금 기탁 잇따라

3월 현재 누적 4천만원

고흥군은 '내 손으로 내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고흥군교육발전기금 기탁이 2023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고흥군교육발전기금은 회원 회비를 비롯해 출향향우, 지역 주민, 사업체, 기관·사회단체 등이 십시일반 성금을 기탁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올해도 고흥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지역 사회의 동참이 활발하다. 지난 1월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시작으로 도화베이스볼파크 영농조합법인, 금산면 청년회, 녹동 신협, 흥양농협, 풍양농협 등 다수의 개인·기관·단체 등에서 기탁이 줄을 이으면서 3월 기준 누적 기부액은 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고흥군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2022년말 기준 총 257억원으로 이 가운데 110억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했으며, 2023년에도 ▲ 관내 고교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등 장학지원 ▲진로·진학 지원 ▲영어·한국사·수학경시대회, 중고생 아카데미 등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에서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진중언 기자

보성-대한씨름협회
세계차엑스포 기간
씨름대회 업무협약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씨름협회와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이광수 보성체육회장, 김경열 보성군씨름협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신설한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보성다향체육관에서 열린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성군에서 3년간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장사씨름대회는 1,200여 명의 선수단이 방문하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이며, 참가 규모는 초·중·고·대·일반부·여자부 등 개인전 6종목, 단체전 5종목이다.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과 맞물려 보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 및 경기는 방송 생중계를 통해 방영되며, 보성차와 보성세계차엑스포도 함께 홍보될 예정이다.

보성군과 대한씨름협회가 최근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관계자는 "전국장사 씨름대회의 첫 시작을 보성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돼 뜻깊다"라며 "이번 대회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화순, 주택화재 피해주민에 200만원 지급

화순군이 지난 2월 20일 사평면 운산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200만 원을 최근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화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번째 지원 사례이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 원, 반소(건물 30%~70% 소실)인 경우 500만 원, 부분소(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은 소실)인 경우 200만 원 이하이다. 이번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화재로서 총 11㎡가 소실된 부분소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다가구주택은 제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단, 피해주택이 ▲다른 화재보험 가입 ▲특례법에 따른 빈집 ▲경미(10% 미만 소실)한 화재피해 ▲방화에 의한 화재 ▲법령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로 곤경에 처한 군민의 일상 회복에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화재 및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은 화기 사용 주의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광양어린이보육재단, 아이돌봄 지원 협약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최근 광양시가족센터와 함께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만 7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중 소득을 기준으로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대 중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맞벌이 가정임을 입증할 서류(재직증명서, 근무상황부 등)를 광양시 가족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우성진 기자

백성기 대표, 장흥군에 이웃돕기 성금

SB그룹 백성기 대표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흥군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군 관산읍 출신인 백성기 대표는 2019년 이웃돕기 성금 6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500만원씩 기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백성기 대표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고향에 내려온다"며 "고향의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고향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기부를 실천하신 백성기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영산강유역청, 하천공사 관계자 간담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곡성에 있는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 국가하천 공사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공사관리관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집행 현황, 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현장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금 및 기성 독려,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및 위험공정 작업허가제 등 안전관리 체계, 건설사고 단계별 조치사항, 주요 건설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절차 및 품질관리 미흡 사례 전파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우성진 기자